2017. 5. 23. (화) 언론보도

국민일보

2017년 05월 23일 (화)
14면 사회

27일 '뚜르 드 디엠지 자전거 퍼레이드'

연천~ 철원 DMZ 일원 62㎞ 달린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연천~철원 DMZ 일원 62㎞를 달리는 '2017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자전거 퍼레이드'를 오는 27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뚜르 드 디엠지는 2015년부터 경기도와 강원도가 DMZ의 생태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 개최해왔다. 올해 행사에는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 한국군, 주한미군 등 2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청정 지역인 DMZ 일원을 달리며 아름다운 자연과 분단의 현실을 직접 보고 느끼는 한편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는 연천 공설운동장을 출발해 신탄리역,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역, DMZ평화문화광장을 반환점으로 다시 연천으로 돌아오는 왕복 62㎞다. 군부대 협조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민통선 구간을 달릴 수 있으며, 백마고지역부터 경원선 철도중단역인 월정리역 구간에서는 남방한계선 철책을 바라볼 수 있다.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볼거리들도 준비되는데 출발지인 연천 공설운동장에서는 5사단 군악대 공연과 경품추첨, 자전거 스탠딩 공연, 초청가수 공연 등이 펼쳐진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10.1 X 10.9 cm

경향신문

2017년 05월 23일 (화)
14면 전국

연천~철원 DMZ 인근 62㎞ 두 바퀴로 달린다

27일 자전거 퍼레이드 개최

경기 연천과 강원 철원을 잇는 비무장지대(DMZ) 인근을 오가는 자전거 대회가 열린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오는 27일 연천~철원 구간에서 '2017 투르 드 디엠지(Tour de DMZ) 자전거 퍼레이드' 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대회는 비무장지대와 인접해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상생 발전의 의미를 담아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해마다 출발지와 반환지점을 번갈아 가며 진행하고 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27일 오전 9시30분 연천공설운동장을 출발해 경원선 대광리역과 철원 백마고지역을 지나 철원 DMZ 평화문화광장을 반환점으로 다시 연천공설운동장으로 돌아오는 왕복 62㎞ 구간에서 펼쳐진다. 특히 군부대의 협조로 평소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철원 백마고지역~월정역 사이 15.6㎞ 구간도 개방된다. 이에 따라 자전거 동호인, 한국군과 주한미군 장병 등 2000여명의 참가자들은 자전거를 타고 남방한계선 철책을 바라보며 달리는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출발지인 연천공설운동장에서는 군악대 연주, 자전거 스탠딩 공연, 연예인 축하공연, 군장비 전시회,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반환점인 철원 평화문화광장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후원 쌀인 철원오대쌀로 지은 '무쇠가마솥 비빔밥'이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2015년 DMZ의 생태와 관광자원을 활용,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뒤 매년 이 같은 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투르 드 DMZ 자전거 퍼레이드' 위치도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25.1 X 6.8 cm

서울경제
2017년 05월 23일 (화)
31A면 전국

경기·강원 '상생 DMZ 자전거 퍼레이드'

경기도는 강원도와 함께 오는 27일 '투르 드 디엠지(Tour de DMZ) 자전거 퍼레이드' 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30분 경기도 연천~강원도 철원 간 왕복 62km 구간에서 진행된다. 이 행사는 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와 강원도가 DMZ의 생태 및 관광자원을 활용해 상생발전 하자는 협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개최해왔다. 이날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 한국군 및 주한미군 장병 등 2,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청정 지역인 DMZ 일원을 달리며 아름다운 자연을 직접보고 분단의 현실을 느끼는 한편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열기자

6.9 X 8.0 cm

경기신문
2017년 05월 23일 (화)
02면 종합

道- 강원 상생 '뜨루 드 디엠지' 연천~철원간 자전거 퍼레이드

경기도와 강원도간 상생발전을 기원하는 '2017 뜨루 드 디엠지(Tour de DMZ) 자전거 퍼레이드' 행사가 오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경기도 연천~강원도 철원간 왕복 62km구간에서 개최된다.

'Tour de DMZ(뚜르 드 디엠지)'는 지난 2013년 정전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도에서 처음 개최한 행사로, 2015년부터는 도와 강원도가 DMZ의 생태 및 관광자원을 활용해 상생발전 하자는 협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개최해왔다.

DMZ 일원을 따라 펼쳐지는 라이딩 코스(62km)는 도 연천 공설운동장을 출발해 신탄리역을 경유하여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역, DMZ평화문화광장을 반환점으로 다시 연천으로 돌아오는 왕복 코스다.

특히 올해는 국방부와 6사단의 협조를 통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민통선 구간도 달릴 수 있고, 백마고지역부터 경원선 철도중단역인 원정리역구간에서는 남방한계선 철책도 바라볼 수 있다.

/이연우기자 27yw@

5.7 X 12.4 cm

경기일보

2017년 05월 23일 (화)
02면 종합

'뜨루 드 디엠지 자전거 퍼레이드' 27일 힘찬 페달

경기도와 강원도가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주최하는 '2017 뜨루 드 디엠지(Tour de DMZ) 자전거 퍼레이드'가 오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연천~철원 간 왕복 62km 구간에서 개최된다.

뚜르 드 디엠지는 지난 2013년 정전 60주년을 기념해 경기도에서 처음 개최했지만 지난 2015년부터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DMZ의 생태 및 관광자원을 활용해 상생발전 하자는 협약을 체결한 이후 공동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 한국군 및 주한미군 장병 등 2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청정 지역인 DMZ 일원을 달리며 아름다운 자연을 직접보고 분단의 현실을 느끼며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된다.

라이딩 코스는 연천 공설운동장을 출발해 신탄리역,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역, DMZ평화문화광장을 반환점으로 다시 연천으로 돌아오는 왕복 62km 코스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국방부와 6사단의 협조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민통선 구간을 달릴 수 있으며, 백마고지역부터 경원선 철도중단역인 월정리역구간에서는 남방한계선 철책을 바라볼 수 있다.

참가자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볼거리도 준비됐다. 출발지인 연천 공설운동장에서는 5사단 군악대 공연과 경품추첨, 자전거 스탠딩 공연, 미니자전거 타기, 초청가수의 공연 등이 펼쳐지며 중식지인 철원 DMZ평화문화광장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연천~철원 왕복 62km 코스 다채로운 부대행사·볼거리

김동근 도 행정2부지사는 "뜨루 드 디엠지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지역 간의 장벽을 허물고 상생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겠다는 협력의 상징"이라며 "이번 행사가 계층과 세대, 이념의 장벽을 넘어 소통과 화합으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17.1 X 17.8 cm